

정원문화도시 비상하는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

순천만국가정원 개장

차별화된 콘텐츠로 가득 채워
정원에 AI와 애니메이션 입혀
"도시 발전으로 지역소멸 대응"

순천만국가정원이 개장하면서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의 베일이 벗겨졌다.

1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날 아날로그적 정원 위에 문화콘텐츠와 인공지능(AI)을 입힌 순천만국가정원이 개장했다.

지난해 열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천만명 가까운 관람객이 방문했다. 전국 510여개 기관·단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고, 지방시대위원회로부터 226개 자치단체를 살린 도시이자 지역균형발전의 해답을 제시하는 모범도시라는 평가도 받았다.

이번에 개장한 순천만국가정원은 오직 순천에서만 만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들로 꽉 채워졌다.

먼저 노후화된 꿈의 다리가 '스페이스 브릿지'로 재탄생했다. 외관은 국가정원의 아름다움에 반해 찾아온 호기심 많은 우주인의 우주선이 내려앉은 모습으로 연출해 관람객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한편, 내부는 우주, 물, 원시의 순천만을 테마로 한 미디어 연출을 가미해 175m 구간을 지루할 틈 없는 풍부한 콘텐츠로 꽉 채웠다.

남문 앞 유희공간과 배수로를 정비한 '스페이스 허브' 역시 새로운 관람 포인트다. 약 5000평에 달하는 공간에 새롭게 조성된 스페이스 허브는 미스터리 서클을 연상시키는 화형 연출과 175m에 달하는 활주로와 같은 공간 구성으로 오전그린광장에 준하는 핵심 콘텐츠로 급부상했다.

키즈가든과 노을정원 인근에는 EBS



순천만 국가정원 개장식이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이란 주제로 1일 순천만 국가정원 스페이스허브(기존 남문광장)에서 개최된 가운데 내·외빈들이 행사장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관규 순천시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영록 전남지사, 남성현 산림청장. 순천시 제공

인기 애니메이션 '두다다쿵'의 캐릭터를 더했다. 두다다쿵의 캐릭터들과 꼬마 우주인이 함께하는 스탬프 투어, '작은 정원사의 모험'은 어린이들과 캐릭터가 직접 호흡하며 정원 속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 역할을 수행한다.

기념품 하우스를 리뉴얼한 '두다하우스' 역시 새로운 체험 포인트다. 외관은 자연주의 환경예술가 박봉기 작가의 작품을 통해 '생명의 시원'이 되는 순천의 아름다운 자연을 표현했으며, 내부는 인공지능(AI)을 통해 '두다'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모두를 위한 정원이 개인을 위한 정원으로 바뀌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이와 함께 누적 조회수 35억 뷰에 달하는 네이버 웹툰 '유미의 세포들'이 이달 애니메이션 영화 개봉을 앞두고 순천만국가정원에 등장했다. MZ세대 중심이 큰 인기를 끌었던 다양한 세포 캐릭터들은 다채로운 표정으로 순천만국가정원의

또 다른 주요 관람 포인트로 등극했다.

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 중 많은 사랑을 받았던 시크릿가든을 4D 콘텐츠 체험이 가능한 '시크릿 어드벤처'로 리뉴얼했다. 우주인 '우드베어'의 스틸 넘치는 여행을 테마로 한 시크릿 어드벤처는 4D 입체영상관 이외에도 인터랙티브 전시, 프로젝션 맵핑 등 최첨단 기술 도입으로 다이내믹한 오감 체험을 제공한다.

가든스테이 또한 일과 휴식, 관광이 어우러진 '정원 위케이션'으로 재탄생했다. 인간의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원에서 이루어지는 위케이션은 기존 어디에서도 시도되지 않았던 최초의 사례로, 사전 예약자가 100여명을 훌쩍 넘을 정도로 남다른 인기를 자랑하고 있다.

하천 수상 퍼레이드 역시 국내 최초로 시도된다. 주간과 야간에 1회씩 진행되는 퍼레이드는 순천만과 국가정원의 다양한 동·식물을 모티프로 디자인했으며,

실제 탐승도 가능하도록 설계돼 국가정원과 순천 도심을 즐기는 또 다른 이색적인 관람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만국가정원 개장을 통해 순천시는 대표적인 '정원문화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순천만국가정원 리뉴얼은 '정원문화도시'라는 시의 새로운 비전을 선보이는 최적의 수단이다. 순천만과 국가정원이라는 우수한 아날로그적 요소에 문화와 디지털적 요소를 더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생태'라는 순천의 고유한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도시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K-디즈니 순천'으로 지역 스스로가 문화콘텐츠의 창조적인 생산지가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엔터테인먼트 유지를 통해 도시 전체를 산업기지로 만들려 한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가속화되는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에도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순천=배서준 기자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고흥군이 지난달 29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했다.

명예군민증을 받은 김철수 회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및 위기가정 지원과 더불어 인구소멸 위기 지역의 부족한 의료 인프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 등을 강조하고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김철수 회장은 우리군과 특별한 인연으로 타 지역에 비해 고령인구가 많은 우리 고흥의 변화 발전을 위한 조언 등을 아끼지 않으셨다"며 "앞으로도 고흥 명예 군민으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김철수 회장은 "고흥군과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명예군민으로서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흥군은 군정 발전에 공이 있거나 고흥의 위상 제고와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타 지역 인사에 군의회 승인을 받아 2009년부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 있다.

양가람 기자



원스톱 중소기업 현장지원단 운영 전남도중기진흥원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중소기업 지원 6개 유관기관(전남도·광주 전남중소벤처기업청·국세청·전남테크노파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근로복지공단)과 협력해 전남테크노파크(순천)에서 전남 소재 3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스톱 중소기업 현장지원단'을 개설했다. 이날 '원스톱 중소기업 현장지원단'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자금난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기업 지원정책, 정책자금, 일자리, 수출, 퇴직연금제도 등 다양한 사업을 1:1로 상담하고 안내했다.

중소기업 니즈에 맞게 1:1 개별 상담을 통한 지원사업 안내를 통해 기업이 경영 애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기대된다.

상담회에 전남도는 도 지원사업, 광주 전남중기청은 정부 지원사업, 국세청은 법인세 컨설팅, 전남테크노파크는 R&D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부 정책자금, 근로복지공단은 퇴직연금기금 안내, 경진원은 도 정책자금, 수출/FTA, 일자리정책 등을 1:1로 상담을 진행했다.

경진원 이성희 원장은 "참여 못한 기업은 추후 권역별 개최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성장과 경영애로 해소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박간재 기자

제11회 보성벚꽃축제 행사 성료 관광객 5000여명 발길

보성군은 지난달 30일 보성군립백민미술관 광장에서 개최된 '제11회 보성벚꽃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봄기운이 완연한 날씨 속에 시민과 출향향우, 관광객 등 5000여명이 참여했으며 저마다 봄의 한 장면을 담으며 인생 사진을 남겼다.

이번 축제는 문덕농악단의 풍물 공연과 지역예술인의 무대와 기념식, 초대 가수 공연, 보성군립국악단 공연, 에어로빅 공연, 벚꽃 노래자랑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문덕면 여성의용소방대에서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에게 따뜻한 보성녹차 무료 시음을 진행하며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 홍보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해와 달리 왕벚꽃 터널 입구부터 행사장까지 이어진 1.5km 벚꽃길을 따라 기념 촬영 장소(포토존)를 곳곳에 마련해 행사에 재미를 더했다.

조연옥 보성벚꽃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분홍빛 벚꽃길과 함께 다채로운 공연을 즐기며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은 세상이 꽃으로 가득한 계절, 아름다운 봄의 향연을 문덕에서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가람 기자



지난달 30일 개최된 '제11회 보성벚꽃축제' 포토존에서 김철우 보성군수와 보성군의회 의원들이 주민들과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보성군 제공

전남 농공단지 4곳, 산자부 패키지 지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의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 대상지에 보성 미력, 무안 일로, 강진 마량, 진도 고군 등 전남 농공단지 4곳이 선정돼 국비 214억원을 확보했다.

산자부가 주관하고 산단공단이 추진하는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정부에서 발표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서 제시된 것

으로, 농공단지와 주변 활성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4개 농공단지에는 2027년까지 국비 214억원, 도비 27억원을 포함한 지방비 91억원 등 306억원이 투입된다.

4곳 청년문화센터 건립이 진행되고, 보성 미력과 강진 마량, 진도 고군에는 아

름다운 거리가 조성되며 무안 일로는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이 추진된다. 열악한 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농공단지 대상 기업맞춤형 특화사업과 산·학·연 연계 연구개발사업 등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 다른 산단에 비해 불리한 여건의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힘써왔다.

박간재 기자